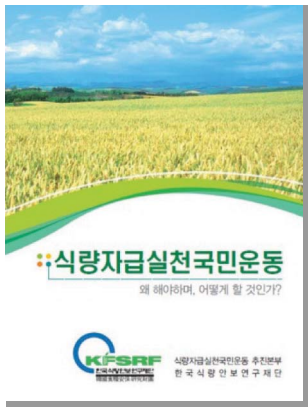


본 재단은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개발과 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2010년 4월 설립된 순수 민간 연구기관이다. 재단은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식량공급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식량정책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독지가들의 후원금을 모아 식량안보에 관한 연구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출판사업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추진본부로서 식량부족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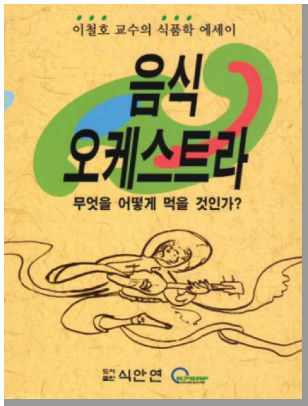
-식량자급실천 국민운동 선언문-

세계의 식량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잦은 기상이변과 중국, 인도 등 신흥 중진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동물성 식품의 폭발적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생산의 사용 등으로 세계 곡물시장에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오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의 식량부족을 예감한 각 나라들이 식량 수출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식량전쟁의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곡물의 70% 이상, 전체식량의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식량 안보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전체 식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이 남아도는 것을 전체 식량이 아주 풍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식량증산이나 소비절약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식량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식량문제를 남의 손에 의탁하거나 방치하여 둘 수 없다. 국민각자가 식량낭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는 일에 동참하여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난에 대비하는 자기 몫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까지 식량부족의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 식량을 아끼고 낭비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을 생활화 한다.
-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만든다.
- 안전하고 영양있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식량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 농어촌을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국민이 된다.

*(재단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오케스트라 (이철호 지음, 2012년 1월 10일 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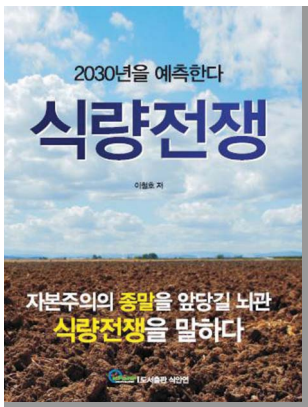


음식에도 철학이 있다.

이 책은 지난 수년간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공감하였던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의 문제를 수필의 형식으로 쉽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무슨 새로운 효험을 가진 소위 건강식품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보건의 영양이론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식품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신비주의 혹은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한 식품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예견되는 식량부족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합리적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국판, 248페이지, 정가 8,000원)

식량전쟁 (이철호 지음, 2012년 3월 30일 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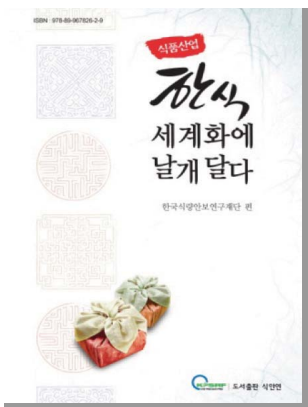


자본주의의 종말을 앞당길 뇌관 '식량전쟁' 을 말한다.

이 책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전후하여 노골화된 서방 선진국들의 식량무기화 전략을 파헤치고 개발도상국들의 어리석은 경제정책과 식량정책을 실례를 들어 제시한다.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키워드는 식량이며, 식량전쟁은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책은 식품학자로서 40여 년의 식품학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식견과 통찰력으로 세계의 미래를 진단하고 세계 공영에 이바지 할 한국의 세계 비전을 제시한다.

(국판, 236페이지, 정가 12,800원)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 달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2012년 4월 25일 초판)



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낮고, 제도적 제약도 많고, 많은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는 전통식품 산업화에 묵묵히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 이제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성공 사례를 모아 글로벌 남김으로써 다음 세대들의 귀감이 되고 한식 세계화 전략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기획하였다. 각 회사에서 전통식품을 산업화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점과 해외시장 개척의 이야기들, 그리고 각 제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적 중요성까지 깊이 있게 다루었다.

(국판, 칼라, 382페이지, 정가 25,000원)